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243>

JCCT 2021-11-29

## 웃음문화의 ‘바보’ 캐릭터에 대하여

### A Study on Fool Characters in a Culture of Laughter

김경섭\*, 한승진\*\*

Kyung-Seop Kim\*, Seung-Jin Han\*\*

**요약** 근대화 이후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바보와 어리석음이 똑똑함과 진지함보다 더 심오하고 대안적일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코미디나 개그에서 바보 캐릭터는 세계 여러 문화에서 웃음을 낳는 기본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스쳐갔던 바보 캐릭터의 유형을 정리하여 그것이 웃음문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연행예술로서의 특징도 밝히고자 한다. 바보들의 우스운 행동과 말이 일반적인 이분법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밖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바보들이 드러내는 인식과 행동은 경험세계에서 진리라고 여기는 가치들을 뒤집으며,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재치와 조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TV 쇼에 등장한 수많은 바보들이 다 같은 바보가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바보도 바보 나름인 것이다. 바보 역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행예술에서 바보는 등장인물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성격이 드러난다. 등장인물 스스로가 자신을 바보라고 인정하는 경우와 바보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관객들이 등장인물을 바보로 여기거나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연행예술에 나타나는 바보 캐릭터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바보 캐릭터, 웃음문화, 연행예술, 등장인물, 관객, 유형화

**Abstract** In the postmodern world, it is widely believed that being a fool or looking foolish can be more profound and unique than being smart and serious. Comic characters, or fool characters in comedy, have been used as basic tools to make people laugh in various cultures around the world. As such, this study will summarize the types of fool characters that have been depicted in plays and organize how they can be categorized in a culture of laughter as well as revealing their characteristics in performing arts. The ridiculous actions and words of fool characters fall outside the common dichotomy of wisdom and foolishness. This is significant and it is because the ways in which they act overturn the values that we consider to be truthful in the world of experience and contain wit and ridicule beyond the general knowledge. Also, it's worth pointing out that many comic characters that appear on TV shows are not all the same. To put it simply, each and every funny character has unique traits and these characters predictably change according to the times. In performing arts, a fool character's personality is displayed through his or her interactions with the audience. That is, on one hand, the character may or may not recognize himself as a fool, while on the other hand, the audience may regard the character as a fool or otherwise.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comic characters that appear in performing art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nd their features are discussed.

**Key words** : Fool Character, Culture of Laughter, Performing Art, Characters, Audience, Categorization

\*충신회원,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27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6일

Received: September 27, 2021 / Revised: October 5, 2021

Accepted: October 16, 2021

\*Corresponding Author: happiness@eulji.ac.kr

Dept. of Sports & Outdoors, Eulji University

## I. 서론

다음 호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영구, 맹구, 오서방, 안어병, 대구, 바보킴, 호구와 울붕이 등등. 이름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바보들의 이름이다. 물론 필자가 지금 대강 기억해낸 것이므로 상당수의 ‘바보’들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영구가 더 바보인지 맹구가 더 바보인지를 가지고 싸우는 진짜 바보들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영화에서도 바보를 내세운 수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오 브라더스>(2003)의 강봉구(이범수 분)가 있겠고, 영화제의 각종 상을 휩쓸었던 <웰컴투 동막골>(2005)의 여울(강혜정 분)등이 기억에 떠오른다. 이 영화에서 바보 내지 바보 캐릭터가 영화 전개상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이다.

합리주의나 모더니즘 담론이 더 이상의 효력을 상실한 현 상황에서 근대화와 함께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바보와 어리석음이 도덕적 진지함과 인식론적 엄격함보다 더 심오할 수 있음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 있다.[1] 코미디나 개그에서 바보 캐릭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웃음을 양산하는 기본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다. 굳이 ‘희극적 불일치’나 ‘우월이론’이니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정상인의 우월감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역사는 유구하다. 우월감은 기쁨의 원인이 되며 웃음은 그런 기쁨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인 것이다.[2]

서양의 중세 시절 막강한 권력의 교회 문화 내에서 일종의 ‘바보제(祭)’는 교황과 신부 등을 바보로 만들어 조롱하고 비판하곤 했으며, 우리의 중세 시절 양반 문화 내에서도 탈춤이나 가면극을 통해 사대부들은 조롱거리로 전락한 바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바보나 어릿광대와 관련된다.[3]

반면 중세의 종교가 현대에 와서 중세 시절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제도로서의 교회는 현대에도 건재하듯, 바보 문화 역시 각종 카니발이나 전통극에서의 성격이 현대에 와서는 변질되었지만 20세기 ‘부조리극’ 등의 예술 양식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래에 와서는 각종 TV쇼에서 다양한 코너를 통해 바보 문화를 드러내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왔다.

이 글에서 주로 언급하고자하는 것은 그간 우리 앞을 스쳐갔던 ‘바보’ 캐릭터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함으로써 그것이 웃음 문화에서 향유된 유형과 실제의 연행에서

어떤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 II. 공연 상황의 특징과 바보 캐릭터

사실 바보 캐릭터는 모방과 도습의 변천사였다. 90년대 초반 맹구(이창훈 분)는 80년대의 영구(심형래 분)를 패러디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그 맹구는 다른 개그맨(심현섭 분)에 의해 또 다른 이름의 맹구로 2000년대까지 벤치마킹되었다. 맹구가 뜸할 즈음에는 타 방송사의 ‘노브레인 서바이버’라는 코너의 바보(정준하 분)을 통해 ‘배삼룡 - 이주일 - 심형래 - 이창훈 - 심현섭 - 정준하’로 이어지는 바보 코미디 연기의 계보가 계속되었다.

KBS의 경우 <개그콘서트>의 코너였던 ‘집으로’의 대구와 빠구, ‘봉숭아 학당’의 명구와 맹구까지 바보 캐릭터 이름에 유난히 ‘~구’라는 이름이 많다. <개그콘서트> 연출을 담당했던 김석현 PD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심형래가 연기했던 영구의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며 선배 캐릭터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KBS를 비롯하여 공중파에 등장했던 바보들은 외양까지도 서로 비슷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콧물을 흘리고 얼굴에는 커다란 점, 머리에 땀뿡 자리도 있고 한 쪽 손이나 다리를 연신 흔들면서 입 가장자리 한쪽을 실룩이는 등의 모습이 그것이다. 더구나 한때 인기 절정을 달렸던 SBS 프로그램 <웃찾사> ‘나몰라 패밀리’의 바보킴 마저도 영구와 맹구를 연상시키는 외모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우스운 행동과 말은 일반적인 이분법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밖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보들이 드러내는 인식과 행동은 경험세계에서 진리라고 여겨졌던 가치들을 뒤집으며, 경험과 일반적인 지식 너머의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보 캐릭터들은 이른바 ‘정상성’이라는 틀에 기대어 세계와 삶을 인지하려 하는 인간에게 그 틀을 깨야함과, 정상이 야기하는 억압과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추동한다.[4]

여기서는 주로 이들 바보들이 등장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상정한다. 그러므로 문헌 상(설화나 소설)에 수없이 존재했던 바보 캐릭터를 분석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논의 틀이 필요하다. 이들

바보들은 ‘현장’에서 ‘연기’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연, 연행의 형식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 연행은 ‘현장’이라는 가변적인 맥락 속에서 연행주체(개그맨)가 그 현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맥락에 맞도록 연행 역시 가변적으로 실행된다. 연행주체는 연행 현장의 시공간을 실제의 시공간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일종의 틀frame을 짜서keying 가상의 시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관객을 비롯해 공연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창출된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일반 연행 모델에 <개그콘서트>같은 공연 형식의 연행물의 연행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5] 이를 통해 본다면 스탠딩 코미디 형식을 취하면서 역할을 분담한 형태로 진행되는 공연물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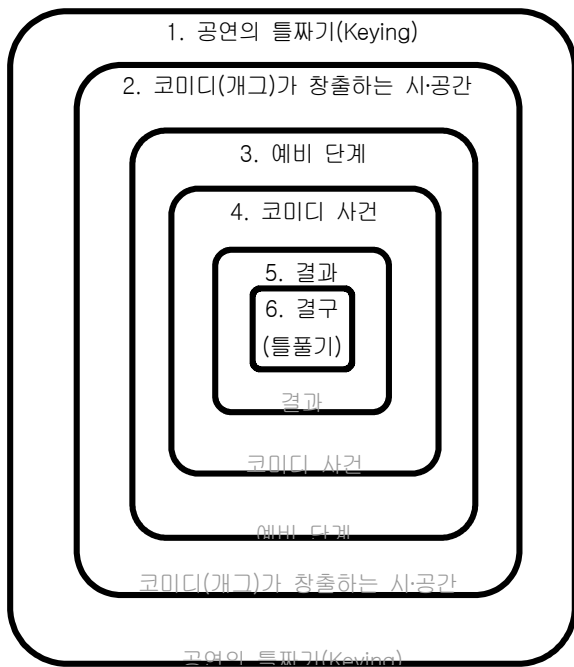


그림 1. 공연 연행의 일반적 틀  
 Figure 1. General Frame of public performance

1단계(틀짜기)는 공연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현재의 시공간으로부터 공연의 시공간으로 전환을 꾀하는 단계이다. 공연이 시작됨을 알리는 여러 지표들이 등장하게 되며 이어서 2단계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3단계는 본격적인 공연을 이끌어가는 서사가 시작되는 단계이자 구체적인 코미디 상황을 개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코미디 연행의 핵심 사건이 펼쳐지면서 관객의 웃음과 등장인물의 연기가 정점을 치닫는 단계라 할 수 있다. 5단계는 코미디 사건이 종결되면서 공연의 시공간에서 진행된 서사 사건도 끝나는 부분이다. 특히 등장인물의 특정 발화(결구)와 동시에 연행이 종료되는 6단계에서는 자연스레 공연의 시공간은 마감이 되고 현실의 시공간으로 전환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연행론의 관점에서 코미디 사건은 등장인물에 의해 새로운 시공간이 창출되고,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에 의해서 현실의 시공간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코미디 사건은 등장인물과 관객(청중)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이 상정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특별한 관계가 새롭게 창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등장인물과 관객 간의 상호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바보 캐릭터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I. 공연 상황에서의 바보 캐릭터 유형

먼저 텔레비전을 스쳐간 수많은 바보들이 다 같은 바보는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바보도 바보 나름인 것이다. 바보 역시 그 시대에 따라 어떤 다른 양상을 드러내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들의 모습을 고찰하기 위해 한때 가장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두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개그콘서트>(이하 <개콘>), SBS <웃음을찾는사람들>(이하 <웃찾사>)은 모두 콘서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 제기했듯이 공연 현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기로 한다.

공연 현장에서 가장 주된 요소는 등장인물과 관객일 것은 이미 강조했거니와 그렇다면 바보 캐릭터와 관련된 등장인물과 관객의 층위를 다양하게 설정해 바보 캐릭터의 특징들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특정 바보 캐릭터가 있다고 하자. 먼저 이 바보 등장인물 스스로가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자신은 바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보 캐릭터에 대해 관객들도 그를 바보로 보거나 바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네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 ① 등장인물 자신은 물론 관객도 모두 그를 바보라 생각하는 경우.

- ② 등장인물은 자신이 바보라 생각하지 않고, 관객은 바보라 생각하는 경우.
- ③ 등장인물은 자신이 바보라 생각하고, 관객은 바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
- ④ 등장인물 자신도 그를 바라보는 관객도 바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 네 경우를 토대로 바보 캐릭터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리 정리하자면 ①과②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흔히 접해 볼 수 있었던 캐릭터인 반면 ③,④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캐릭터를 나타낸다. ①과②의 경우 관객이 등장인물을 바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 즉 정상인인 관객이 바보인 등장인물을 지적 우위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상황이 설정되는 것이고, ③과④의 경우는 관객이 등장인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색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제 각각의 유형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① 등장인물 자신은 물론 관객도 모두 그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전통적인 바보 캐릭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구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패러디한 <개콘> ‘봉숭아 학당’ 맹구는 자의식이 전혀 없는 등장인물이다. 스스로가 바보인지 아닌지의 분별에 대한 의식도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등장인물을 보는 관객들의 시선 역시 동일하다.

‘집으로’의 대구(김대희 분)와 뽕구(윤성호 분) 역시 이런 유형에서 멀지 않으며, ‘바보삼대’의 삼부자 역시 전통적인 바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스스로 바보라고 소개하기도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비취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물들이다. 자신의 자의식 속에서만 사는 인격자들이므로 이런 바보들의 대사는 당연히 정상인들에게 비정상인의 행동과 말로부터 발생하는 우월감의 웃음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바보들이 <웃찾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프로그램이 주 관객이나 주 시청자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코미디 내용의 방향이나 연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연기자의 나이나 연기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등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바보 캐릭터에 있어서만큼은 영구 이미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KBS가 확고한 지위를 선점하고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SBS <웃찾사>의 여러 코너에 바보 캐릭터가 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바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웃찾사> 개별 코너 중에서는 ‘어쨌든 로보캡’의 바보 로보캡이 이 유형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럼에도 이 바보가 영구나 맹구와 다른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로봇이라는 과학성, 문명성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보 로봇은 아무리 바보라도 인간 바보와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② 등장인물은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객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 유형은 <개콘> ‘깜짝 흡쇼핑’의 안어병(안상태 분)과 ‘봉숭아 학당’의 옥동자(정종철 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바보들은 자기 PR의지가 매우 확고하고 자신에 대한 자의식도 비교적 높은 인물 유형이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게 된다.

①이 전통적인 모습이라면 ②는 이보다는 진화된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웃찾사>의 경우 ‘그런 거야’의 줄병(권성호 분), ‘택아’의 택이(윤택 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바보들은 자기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고자하는 생각만 있지 발화에 논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웃음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웃찾사>의 경우, ‘언행일치’나 ‘말을 하지’, ‘회한하네’ 등의 코너들에서 ‘의사소통의 장애 내지 불일치’의 문제들을 이용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 과정에 등장하는 바보스러운 캐릭터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②는 ①보다 바보스러움에서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코미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바보 유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웃찾사>나 <개콘>에 한번이라도 등장했던 바보를 모두 거론하기 힘들지만 대다수의 유형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등장인물은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관객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아마도 이 유형이 예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이 아닐까 한다. <개콘>의 ‘호구와 울붕이’가 그 예인데 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개그콘서트 대본 ①  
 Table 1. Gag-Concert Script Case ①

호구 : 어려서부터 잘 울던 평강공주를 달래기 위해 왕은 '이 다음에 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낸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찾아가 글과 무예를 가르쳐 마침내 바보 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 (어투가 정상으로 싹 바뀌며) 이 렇게 신분의 차를 극복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부부의 연을 맺은 곳은?

울봉 : (단호한 어조로)신길동 새천년웨딩홀.  
 호구 : (재빨리)주례는?  
 울봉 : 김창식씨.  
 호구 : (매우 놀라며)피아노는?  
 울봉 : 한보람양.

- 개그콘서트(2006년 9월 17일 방영분)

이 코너때문에 한 때, 가상의 인물인 '김창식'씨가 유명세를 탄 적이 있다. 한 신문에는 '김창식'씨의 정체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지만 가상의 인물로 설정되어 인구에 회자된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에서 실체가 없는 어떤 인물을 지칭할 때 김창식씨가 단골로 오르내린 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또 이 코너를 패러디한 정치 풍자물도 선보였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권의 문제로 돌리는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모든 문제의 답을 김창식 씨와 백보람 양에게 돌리는 바보 '호구와 울봉이'의 어법을 이용하여 특정 언론을 비판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호구나 울봉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분명 바보 캐릭터임이 분명하다. 일단 차림새가 전통 바보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고, 예의 콧물도 흘리고 있으며 머리 모양에서부터 발음까지 영구와 맹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치 관객들에게 "우리는 분명 바보입니다. 바보로 봐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바보 같은 대화는 어느새 정확한 발음과 똑똑한 발성으로 변한다.

위에서와 같이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결말로 귀결되지만 관객은 그들을 바보로 간주했다가 바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놀라움에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호구와 울봉이는 분명 색다른 바보 캐릭터임에 틀림없다. 물론 그들의 바보적 성격은 여전히 이전의 영구와 맹구 캐릭터에 크게 기대고 있지만, 관객들에게 바보인 듯 하면서도 전혀 바보스럽지 않은 모습을 재현한다는

면에서 이전의 바보 캐릭터가 가지지 못한 특성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④ 등장인물 자신도, 그를 바라보는 관객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겠는가. 하지만 있는 것도 같다. 바로 한때 KBS <개콘> 최고의 인기 코너인 '마빡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빡이(정종철 분), 얼빡이(김시덕 분), 대빡이(김대범 분), 갈빡이(박준형 분) 총 4명이 등장하는 이 코너에서 이들은 바보인가, 바보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자기 자신의 이마를 시종일관 때리는 이들은 모습은 분명 바보로 보이지만, 그들의 대사는 다른 바보들과 다를 뿐 아니라, 다른 코너의 정상인과의 다른 유별난 수위를 넘다들고 있다.

'마빡이' 코너는 기본 줄거리만 대강 잡고 정말 대사가 별도로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실제 리허설 때 공연장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대사에 맞추어 출연진들의 애드리브 위주로 개그가 진행된다. 대본은 다음과 같다.

표 2. 개그콘서트 대본 ②  
 Table 2. Gag-Concert Script Case ②

(이날은 얼빡이부터 등장한다. 얼빡이 특유의 이마치는 자세를 하며)  
 얼빡이 : 아이 씨 무대가 너무 길어 졌어. 내가 누군지 아나. (관객들:얼빡이) 그래 이래야 만족스럽지. 골목 바보 얼빡이를 뿔로보고 .....(중략).....  
 요즘 마빡이 대본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본이 진짜로 없다니까 우리는 리얼리티 액션 코너야. 마빡아 불안하다 나와 봐라. (마빡이 이마를 치며 등장. 관객들은 소리를 지른다) 마빡이 마빡이 내 친구 마빡이 인기폭발 마빡이.  
 마빡이 : 내가 누군지 알아 골목대장 마빡이. 골목대장 마빡이를 몰라 보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박자가 힘들어 이거. (관객들을 향해) 자세 재밋나. 네티즌들이 말이여 마빡이 매주 자세 바꾸니까 말이여.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마빡이 오리지널 자세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 봤어.  
 얼빡이 : (힘든 표정을 지으며) 대사가 왜이렇게 기냐? (관객들 웃는다)  
 마빡이 : 말 끊지 마. 기본 마빡이 자세. 아까 그자세 하다가 이거하니까 진짜 편하다. (관객들 웃음)

.....(중략).....

갈빡이 : (마빡이, 얼빡이, 대빡이보다 훨씬 쉬운 동작으로 이마를 치며)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대사. 여유로운 삶 절대로 숨을 헐떡이지 않는 갈빡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갑자기 관객을 향해) 누구랑 오셨어요. (이때 마빡이는 힘들어 쓰러지려한다).... (중략) ...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재밌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저희 마빡이 팀도 너무나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겨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때 마빡이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뒹굴며 소리친다)

마빡이 : 빨리 끝내자고 그랬잖아!! (관객들 웃으며 비명을 지른다)

갈빡이 : 저는 아직 초반이라 썩습니다.

.....(하략).....

- 개그콘서트(2006년 11월 26일 방영분)

이 코너에 등장한 인물들은 차림새나 행동이 바보 캐릭터임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외양과 차림새와는 별도로 그들의 대사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특정 서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코너를 스스로 설명하는 이른바 메타서사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다.

거기에는 관객과 자유스러운 소통의 길을 확보함으로써 관객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코너를 두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정상인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바보 캐릭터와는 분명 다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보가 나타나는 서사의 웃음 층위는 언어의 구성, 특별한 인물의 성격, 인물을 둘러싼 맥락 등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6] ‘마빡이’ 캐릭터는 이런 유형화 밖에서 다루어할 성격인 것이다.

이들은 무대에 등장해서 무언가를 펼치고 있지만 스스로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 더구나 관객들도 그들을 바보로 보지 않는다. 정말 이상한 바보 설정이다. 특히 ‘정확한 대사, 여유로운 삶’을 자랑하는 갈빡이는 이미 이 코너 안에 들어와 연기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관객들보다도 더 위에 서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느낌이다. 코미디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바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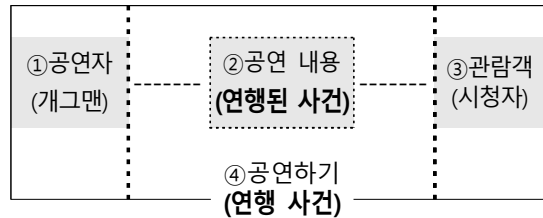
#### IV. 고찰 및 결론

그 옛날 우주의 신비를 해명하느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걷다가 웅덩이에 빠진 철학자 탈레스를 비롯했던 젊은 하녀의 일화는 철학과 웃음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의 소산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위해 생생한 삶의 현장을 떠나있는 형이상학자들의 허위성을 깨물어 보는 철학적인 웃음인 것이다.[1] 이처럼 웃음과 웃음 문화는 웃음이 야기하는 가벼움을 넘어서 삶과 사회,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바보 캐릭터들이 나타내는 말과 행동들이 분석심리학에서 다루는 인간의 무의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7] 물론 여기서 다루고자한 것은 연행 상황에서의 캐릭터 유형이지만, 바보라는 오래된 인간 유형이 세계적인 보편성과 시공간을 초월한 연원에서 언급되어야 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보 관련 TV 쇼의 공연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연행 상황의 모델  
Table. 3 The Model of Performance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바보 캐릭터는 바보에 대한 ①과③의 인식상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캐릭터이다. 양자 모두 바보를 바보로 여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바보 캐릭터 유형이 ②에서 활약하게 된다.

두 번째 바보 캐릭터는 바보에 대한 ①과③의 인식상 차이가 발생하지만 ①은 스스로를 바보로 여기지 않고, ③이 ①을 바보로 간주한다는 면에서 첫 번째 캐릭터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런 유형 역시 바보를 주제로 하는 공연 예술에서 흔히 등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바보 캐릭터는 ①과③의 인식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두 번째 캐릭터와 유사하지만 ③이 ①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①은 분장과 대사에서 스스로를 바보로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바보가 아닌 것으로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되기에 ③은 ①을 바보로 여기지 않게 된다. 다소 색다른 유형의 바보 캐릭터임이 분명하다.

네 번째 바보 캐릭터는 바보를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①과③의 인식상 차이가 없는 매우 유별난 캐릭터이다. ④의 주체인 ①과③ 모두 바보에 대한 인정 행위나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③은 분명 바보와 관련된 서사가 진행되기에 매우 흥미있는 바보 캐릭터가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공연 형식의 무대에서 드러나는 바보 캐릭터의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로 낙인 찍혀 살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고, 바보인데도 바보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세상살이의 모습이다. 그러니 누가 바보고 바보가 아닌 것이 중요하겠는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한편의 코미디인 모양이다.

Psychology, Journal of Literary Therapy 41, 207-239, 2016.

## References

- [1] HK Jeong, Narrheit und philosophisches, Buechner und Moderne Literatur, 53:137-159, 2019.
- [2] BS Kim, The Foolish Son-in-law Folk Tale's Meaning on the Basis of Laughter, Studies in Humanities 17, 1-28, 2007.
- [3] KY Lee, The View of Foolishness in a Fool Folktales and the Problem of Symbiosis, Journal of Korean Oral Literature 51, 37-74, 2018.
- [4] HY Cho,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ontentization for Folk-type Idiot Characters through the Case of Keloglan in Turkey, Story & Image Telling, 20, 327-364, 2020.
- [5] KS Kim, JL Kim, The Behavior Economics in StoryTelling,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329-338, 2019.
- [6] KY Lee, The Level of Laughter in Idiot folktales, 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 36, 153-180, 2011.
- [7] YJ YI, An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Folk Tale "The Stupid Brother" Based on Analytical